

KOCHAM

Economic Briefing

Korean Chamber of Commerce
and Industry in USA, Inc

2015년 6월 18일(목)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- 1) 한국에서 E-2비자 갱신, 더 어려워졌다
- 2) 미국 연준, 기준금리 동결 ·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- 1) 해외 자산운용사들, 일본 진출 증가
- 2) 중국, 교통은행 시범타로 대형 국영은행 개혁 '박차'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- 1) 소프트뱅크, 홍하이·알리바바와 로봇 합작사 설립
- 2) 시스코, 중국 고용 R&D 위해 11조원 이상 투자 계획

【 미국 경제 동향 】

1) 한국에서 E-2비자 갱신, 더 어려워졌다

- 한국에서의 소액 투자비자(E-2) 갱신이 까다로운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.
- 한국인의 E-2비자 취득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. 2013~2014회계연도의 경우 1766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1670명이던 2001~2002회계연도 이후 12년 만에 최저치였다.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9~2010회계연도 3320명에 비하면 4년 만에 그 수가 절반 수준으로 한국인의 E-2비자 취득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- E-2비자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는 비자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명 이상을 고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. 하지만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끼리 운영하는 생계형 소규모 업체의 경우 정부가 E-2비자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민업계의 전언이다.
- 특히 한국에서 비자를 갱신할 경우 국무부 소속 영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국내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서비스국 직원과 할 때보다 그 기준을 훨씬 까다롭게 적용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.
- 나현영 변호사는 “정부에서는 E-2비자를 내줄 때 가족끼리만 운영을 하고 세금보고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갱신해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” 고 말했다. 그는 이어 “미국과 한국의 기준이 다르진 않지만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영사들이 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” 고 덧붙였다.

- 조나단 박 변호사는 “E-2비자 유지를 위해서는 비즈니스가 생계형이면 안 된다” 며 “고용창출을 하지 못하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국내에 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” 고 조언했다.

2) 미국 연준, 기준금리 동결·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

- 지난 17일 미국 연방준비제도(Fed, 연준)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직후 성명서를 통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으며 기준 금리는 동결시킨다는 회의 결과를 공개, 또한 장기 기준 금리 전망을 하향 조정해 금리 인상이 더 천천히 이뤄질 것임을 시사
- 연준은 미국의 경기가 적절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으며 노동시장은 개선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은 안정적이라고 평가, 또한 연준 위원 대부분은 연내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
 -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연내에 2번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전망, FOMC 위원들이 제시하는 경제전망 및 금리 전망치에 따르면 기준 금리는 연말에 0.625%에 이를 것으로 예상
- 한편, 전문가들은 연준이 7월 FOMC에서도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한 다음 9월과 12월에 한 차례씩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
 - 하지만 앞으로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호전될 경우 7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

【 해외 경제 동향 】

1) 해외 자산운용사들, 일본 진출 증가

- 지난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최근 투자신탁 규모가 100조엔을 돌파하는 등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커지며 사업 확대를 노리는 해외 운용사들이 일본행을 결정하고 있다고 보도
 - 이는 일본의 막대한 투자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일본 내 사업 기회가 확대됐다고 판단한 까닭이며 일본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은 약 1천7백조엔을 기록
- 운용자산 7조엔 수준으로 세계 6위를 기록한 미국 위즈덤트리매니지먼트는 올해 내로 일본에 거점 개설을 준비 중이며, 이미 일본 증권사들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업 강화를 위해 직접 운영하는 거점을 마련하겠다는 발상
- 이보다 앞서 호주 IFM 매니지먼트는 일본 기관투자자들에게 해외 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 후 올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

2) 중국, 교통은행 시범타로 대형 국영은행 개혁 '박차'

- 지난 17일 중국 치엔장완바오는 최근 중국 국무원이 교통은행 심화 개혁 방안을 최종 허가해 교통 은행이 국영은행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됐다고 보도
 - 교통은행은 앞으로 국영 지배구조는 유지하지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동시에 직원 지분 참여도 모색, 이사회와 감사제도 강화, 직원 급여나 인사 시스템, 리스크 관리제도도 총체적으로 점검

- 교통은행은 이 같은 개혁으로 주주 가치도 높일 전망이다며 전문가들은 교통은행 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경영 효율과 업무 활력을 높일 수 있고 이는 주식 가치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분석
 - 특히 교통은행의 국가 보유 지분인 30.95% 중 일부를 민간 자본에 넘길 경우 IT기업 텅션이나 민영투자그룹 푸싱처럼 온라인 금융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주요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전망
- 한편, 교통은행의 개혁은 또 다른 국영은행들의 체질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
 - 중국 금융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교통은행에 이은 차기 개혁 대상으로 중국은행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이는 올 들어 상대적으로 주가 상승률이 낮았던 은행주 주가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

【 산업·시장 동향 】

1) 소프트뱅크, 홍하이·알리바바와 로봇 합작사 설립

- 지난 18일 일본 소프트뱅크는 애플 하청업체로 유명한 대만 홍하이정밀,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와 *휴머노이드 합작회사 ‘소프트뱅크 로봇홀딩스’를 설립한다고 발표
 - * 휴머노이드-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지녔으며 인간의 행동을 가장 잘 모방할 수 있는 로봇 (인간형 로봇)
 - 이는 소프트뱅크의 자회사 형태로 홍하이와 알리바바가 각각 20%, 145억엔을 공동 출자
- 소프트뱅크는 합작회사를 통해 휴머노이드 Pepper를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계획

- 소프트뱅크는 2012년 프랑스의 알테바란로보틱스를 인수하며 로봇 사업에 진출했으며 Pepper는 이 회사의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세계 최초의 감정 인식 로봇
- o 한편, 소프트뱅크는 오는 20일부터 일본에서 Pepper를 19만8천엔에 판매할 예정

2) 시스코, 중국 고용·R&D 위해 11조원 이상 투자 계획

- o 지난 17일 시스코는 성명을 통해 향후 몇 년 동안 중국내고용 창출 및 연구개발 (R&D), 지분 투자 등에 최소 100억달러(약11조1830억원)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
- 이번 결정은 다음 달로 임기가 끝나는 시스코 CEO 존 체인버스 후임인 척 로빈스 글로벌 총괄영업 선임부사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왕양 중국 부총리를 비롯한 중국 정부 고위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결정
- o 전문가들은 이 같은 투자는 시스코에게도 긍정적이며 중국이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시스코에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
- 블룸버그이텔리전스의 존 버틀러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여전히 개발되지 않은 기회들이 많아 세계 최대 신흥국인 만큼 시스코 또한 이를 진심으로 이용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분석
- o 한편, 시스코는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 대학 100곳의 응용 과학 부분 4년 기간 프로그램(교육부문)에 투자